

공주시, 선거 앞둔 고비풀린 선심성 행정 쏟아져

선심성 정책에 혈세 '줄줄'

공주시(시장 김점섭)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쏟아내고 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공주시가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현금·현물 집행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을 시행한 충남 공주시가 새해 들어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시행 등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히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2019년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관내 만6~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공주시장 김점섭

오는 4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으로 시는 대상 어린이와 청소년 9500여 명에게 대중교통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효 가족수당'을 신

설해 연 4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급해 효 문화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이어 관내 430개소의 경로당 노인회장을 마을경로당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연 2회 활동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 지원정책도 확대해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귀농인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정착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사회복지 강화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재정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3월과 6월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지난 2020년 지자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 2021년 48.7%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세를 보이며 충남은 세종(64.0%)시를 제외하면 전 지자체가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명을 요구한 공주시청 관계자 A는 "이 사업이 정치인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선심성 사업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고 우려했다.

복수의 관계자 B는 "시민 예산을 무슨 찜질 돈 주듯 주게 됐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이는 자기 돈이라면 선심성으로 쓰겠느냐. 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정민준 기자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 '안전신고 분야' 행안부 장관 표창

전국 지자체 중 유일 기관표창 수상

당진시가 2021년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안전신고 분야 정부포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 개선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안전신고 동참에 유도하고자 총 57점 규모로 표창을 수여했으며, 당진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신고 중 수용 또는 일부수용 처리된 신고에 대해 총 3000만 원 규모의 모바일 당진사랑 상품권 1만 원 권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작년

에만 1만7657건의 신고를 유도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의 실적을 얻은 수치다.

김홍장 시장은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은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수상은 안전신고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을 대표해 우리시가 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안전도시 당진을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달 29일 세계에서 431번째, 국내에서는 25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으며, 오는 27일 공인 선포식을 앞두고 있다.

/가금현 기자

보은군, 비가림 간이버스정류장은 '흡연구역'



▲시가버스정류장 모습

보은군의 행정 업무 능력이 인근 옥천군과 영동군에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간이시가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지 않았다. 공공이 용시설물임에도 정류장 내에서 흡연을 할수 있는 것이다.

주민 A씨는 "다른 지자체는 정류장 10M 이내 흡연시 3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봤다"며 "담당자가 업무 파악이 안되 늦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시내 주요 몇 곳은 흡

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외곽으로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10월1일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삼산공원, 장신공원, 속리산 잔디, 조각공원, 보은시외버스 터미널 앞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군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계도와 홍보를 시작 했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과태료 3만원을 부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동군은 버스정류장내 흡연 금지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금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단속과 홍보를 하고 있다.

/이기국 기자

청양군, 청년층 행복 위한 57개 세부과제 확정

시각적 아름다움과 실감나는 관광콘텐츠 '예당호 모노레일' 기공식 개최

청양군이 청년층 권리 증진과 경제지립, 생활 안정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실행계획과 57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고 지난 12월 31일 밝혔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생활이 위축된 상황을 반영해 일자리와 주거 안정, 기본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군은 '청년의 삶이 꽃이 되는 청양'을 비전으로 경제지립, 생활 안정, 문화진흥, 복지증진, 여성 배려, 협력 강화 등 6대 추진 분야 57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경제지립 전략은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와 기초단체 최초 청년수당 지급, 취업 수당 지원과 창업공간 확대 등이다.

한성진 기자

생활 안정 전략은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청년임주자 공급 비율을 80% 이상으로 늘리고 청양형 행복주택 10동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월세 경감 사업으로 셰어하우스(10실)와 블루칩하우스(6실)를 조성하고 군내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군은 청년층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촉률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김돈곤 군수는 "청년은 청양의 미래이자 100년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의 삶이 꽃으로 만개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개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수 있는 도시 선포



청주시가 지난 5일 동부창고 6동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과 청주시 복지교육위원회 시의원,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들이 참석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청주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하며 청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아동참여위원들의 아동권리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아동들에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서'를 전달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2021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표현 종목에서 초등부 1위를 차지한 강서초등학교

학생들의 역동적인 치어댄스 공연과 함께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청주의 의미를 담은 샌드아트 영상도 상영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해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유니세프에서 인증한 도시를 말한다.

청주시는 2021. 12.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앞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에 걸쳐 아동과 시민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범덕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청주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예산에 대해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직접 아동이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형태 기자

예산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저소득층 환자대상 무료 간병서비스 연중 실시

예산군은 예산종합병원 및 예산명지병원과 '2022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에도 무료 간병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다인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은 올해 1억5200 만원을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분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다인병실 이용 시 1인당 연간 30일(최대 45일) 범위 내 24

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257명(남 76명, 여 181명)의 저소득 환자에게 총 2648일의 간병서비스와 약 1억5800만원을 지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 없이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간병서비스 신청방법은 지정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최용관 기자

천안시, 지역 농가와 빵 산업 육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선순환 체계 구축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구축을 추진 중인 천안시와 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올해는 우수한 지역농산물 연계로 농가와 제과업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하는 지역 빵 산업 육성에 나선다.

지난해 천안시와 제과협회 천안시지부는 호두과자를 비롯한 천안 빵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재조명했으며, 지역 내 우수한 빵집을 적극 홍보·육성하기 위해 10월 10일 '빵빵데이' 축제를 운영했다. 또 빵빵데이에 대한 상표 출원과 등록을 마쳐 '빵의 도시 천안'이라는 특색 있는 브랜드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는 우수 빵집과 지역농산물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농산물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 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제과협회 천안시지부는 지난해 우수 입산물 생산자인 광덕의 한호두 농가와 연계해 지역 제과업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간호두 800kg을 구매했다.

또 작년 가을 일기의 영향으로 딸기 산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1개월 동안 지역 친환경 딸기 농가에서 1만kg(1억 5,000만 원 상당) 딸기를 사들여 케이크 등 제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과 상생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천안만의 빵 산업 차별화를 목표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제과점을 점차 확대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진 천안시지부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제과협회가 앞장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의 제품 맛 좋은 빵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천안 빵하면 건강한 빵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